

신짜오 다투스

이달의 날씨 : ☀️ × 18 ☁️ × 3 🌧️ × 9 평균기온 : 31°C 평균습도 : 64%

베트남어 수업 끝. 방학 시작?!

4월은 또 다른 세 가지 활동의 달이다. sewing school, hope school(관련기사 2p), disabled youth(관련기사 5p). 각 직업학교를 통해 이곳 사람들과 더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일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Sewing school은 베트남어 공부를 하던 YMCA건물 2층에 있다. 이곳에선 원단을 재단하여 제조, 완성, 포장까지 모든 공정과정이 여공들의 수작업을 거쳐 이루어진다. YMCA를 오가며 눈인사만 하던 여공들은 우리를 반기고, 우리는 '바지주머니 만들기'과정에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다. 정신없는 재봉틀소리와 설 세 없는 작업 속에 툼툼이 배운 베트남어로 짧게나마 말을 걸어 이름과 취미를 알아간다. 콩콩거리는 재봉틀소리는 오후 5:30분이 되어서 잠잠해지고, 그때부터 여공들과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운다. 같이 영화도 보고,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소소한 놀이거리를 즐긴다. 주말엔 초대를 받아 같이 저녁을 먹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간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친구들을 사귀어가며, 누군가 힘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든든해진다. 조금씩 이 나라에 스며드는 기분이 든다.

신병철 기자 jumptothehigh@daum.net



HIT 베트남 레알 스토리 - 1p

그는 한국인인가?
'안녕하세요' 아저씨와의
독점 인터뷰 - 2p

HOT 이달의 웹툰
님은 먼 곳에 - 3p

[동행취재] 그들과 함께한
일주일 - 5p

심경고백 Am I cruel
or kind - 6p



☆☆신짜오 다투스☆☆
후기를 보내주세요!!

'주관적인' 선정을 통해
베트남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땀은 예쁜 팔찌를 보내
드립니다.

jumptothehigh@daum.net

※편집총괄
신병철, 유지향

Working at the hope vocational training school

늘 가던 YMCA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장소를 향해 간다. 매일같이 보던 여공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Hope School. 아직은 언어의 장벽이 높게만 보이던 단원들에게 익숙한 말이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확실히 한국어말이었다. 수위아저씨께서 건넨 짧은 한국어말이 우리에게 인사 그 이상으로 들린다. 여러 해 동안 아띠 단원들과 만나면서 수위 아저씨의 노트엔 베트남어로 적어놓은 한국어가 빼곡했다.

Hope School에서는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의 구조와 수리 방법 등을 배운다고 했었다. 우리의 코디네이터도 그곳에 부탁하기를 우리가 베트남어 수업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수업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Hope School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왔다는 이유로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해들은 이야기와 조금 달라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오후에도 수업을 하지 않았다. 첫날 이고 수업만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준비한 것도 없었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은 수업을 하냐고 물어보니 내일은 수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작지만 큰 실수를 했다. 학생들의 말만 듣고 선생님들께 여쭙보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날도 아무런 준비 없이 Hope School로 향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 에어컨을 수리하러 가서 Hope School로 오지 않은 상황이라 또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며 시간만 보냈다.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했었더라면?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과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순 없었을까?

그 날 저녁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잇거리를 준비했고,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오전시간에는 오토바이의 각각 다른 부분을 분해·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 함께 놀려고 했으나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 점심식사 후를 기약했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선생님과 수위아저씨께서 우리를 불러 카페에서 커피와 음료를 사 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여공들과 함께 한 Sewing school에서와는 달리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Hope school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한 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인사와 간단한 질문들, 공책을 찢어서 오목을 두고, 칠판에 그림 그리며 대화하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난 뒤, 공식적인 두 번째 프로그램이라 아직까지 서툰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부끄럽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 이러한 잘못을 보완해서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심성규 기자 sgsim23@nate.com



먹는 것, 노는 것 또한 봉사활동의 연장선인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한 레퍼토리가 있다. 한국에서 먹던 밥그릇의 3배는 되는 크기의 그릇에 면이 가득 담겨 나온다. 내 눈은 이미 그 양을 스캔하고, 내가 먹기에 부담스러운 양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조금 망설이다, 웃으면서 너무 많다고, 조금만 달라고 말 씌드린다. 그러나 어머님은 나보다도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자 더 퍼주신다.

“많이 많이 먹어~”

그럼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군말 없이 먹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먹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봉사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이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성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매일 저녁상을 차리기 얼마나 힘드실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는 돌아오는 그날까지 과식을 할 것 같다. 다만, 이 사건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빈말로라도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 앞으로 안하게 될 것이다.

김민주 단원

나는 노는 것보단 식사에 있어서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부딪히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현지에 왔으면 현지인들과 닮아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다. 하지만 양이 문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넘어선 음식이 주어졌던 적이 대부분이다.

이 때 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밥을 남길까, 남기면 만들어 주신 분이 서운해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이 양을 다 먹을 순 없다는 생각도 든다. 다 먹으면 탈이 날 것이고, 기분도 좋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온 건데 밥 먹는 것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적게, 자주 먹었으면 먹었지 많이 먹는 것은 여전히 내키지 않는다. 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몸이 아픈데 참고 놀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픈 채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내리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 하는 내 모습이 이기적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이주리 단원

EP.2 넘어 떠난 이유

온 몸이 녹아버릴것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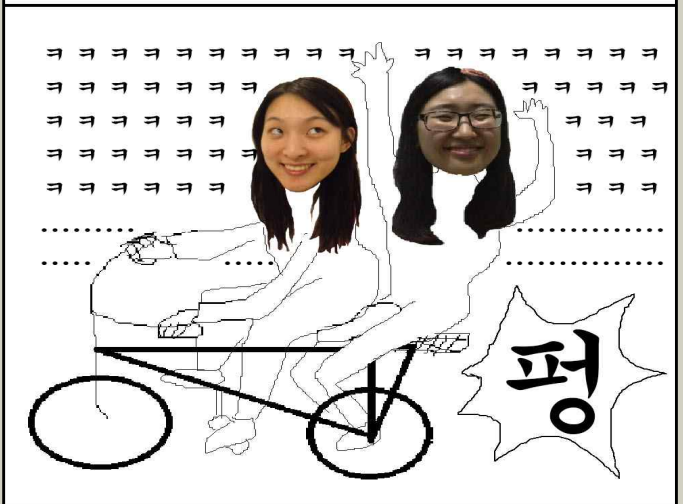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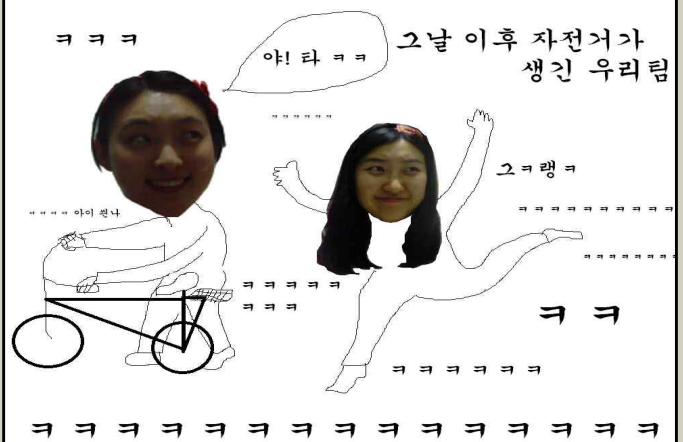
살인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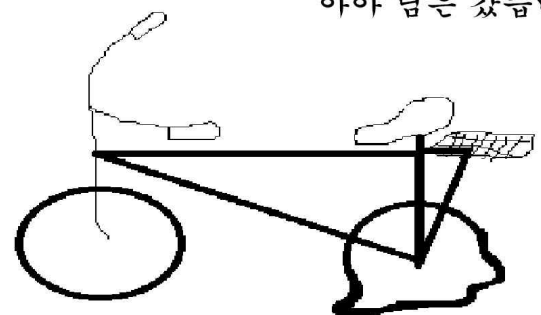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고 하니 (5x세)
호랭 어머니
이침밥의 지배자

너희들에게
자전거를 하사 하노라



아아 넘어 갔습니다...



A : 음식이 맛있지 않아 적당히 먹고 군것질을 한다.
함께 어울리는 게 즐겁지 않아 개인 시간을 보낸다.

B : 속이 안 좋아도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억지로 더 먹는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고 사람들과 어울린다.

항상 같을 순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 어느 정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어쩌면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 의식적인 행동은 이미 자원 활동이 아닌 것 같다. 당연히 매 순간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신병철 단원

입맛에 맞지 않지만 남김없이 먹어야 하고, 피곤하지만 그들과 억지로 노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면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봉사라면,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와서 잘 먹고, 스스로가 재미 혹은 흥미를 느껴 그들과 함께 놀다가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만 봉사라는 가면을 쓰고 “나 봉사 하고 있소”라고 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음식 같은 경우는 봉사 이전에 만들어 주신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저 그들과 친구가 되어 노는 것이다. 난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난 이곳에서 ‘함께 살고’있다.

심성규 단원

'주는 대로 밥을 먹는 것 또한 봉사활동인가?' 라는 의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다.

내가 밥을 조금 먹고 싶어도 '주시니까' 그냥 참고 먹는 것. 자신이 '자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것 또한 자원봉사활동인가 아닌가로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봉사'가 있을까?

자신이 정말로 '자원'해서 밥을 더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것이고,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먹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내가 밥을 더 못 먹거나, 안 먹고 싶은 상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지향 단원

멘붕

*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그림: 민주&성규



wahsheong@nate.com

Sgsim23@nate.com



그린이
김민주



wahsheong@nate.com

만든이
심성규



Sgsim23@nate.com

짜오 : 짜순아, 우리 베트남에 왔으니깐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자

짜순 : 그래 좋아좋아^^

식당에서

짜오 : 쌀국수 두 개 주세요.

(...남남ing)

짜오 : 이제 계산하고 나가볼까?

짜순 : 그래그래!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계산서 도착

짜순 : 음.. 우리가 먹은 쌀국수는 45,000동인데..

오잉@0@??? 이걸 뭐지????왜 돈이 더 추가됐지?

베트남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휴지는 공짜가 아니다!



아띠들의 4번째 활동 - Disabled Youth

“이전에 접해왔던 장애인들과 다를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기대되는 부분이 더 커요.”

베트남 아띠들의 4번째 활동인 Disabled Youth 활동을 앞두고 나눈 이야기 중 하나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새로운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아띠들의 활동반경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26번 버스로 갈아타고 기관에 도착한다. 이제는 버스도 곧잘 잡아탄다. 아띠들이 이용했던 버스의 안내원을 두 번이나 우연찮게 만나는 일도 있었다.

“Xin Chao!” Anh Chung에게 인사를 건네면, 웃는 얼굴로 아띠들을 맞아주셨다. “좋은 아침!”이나 “아침밥은 먹었어?”와 같은 가벼운 아침인사를 기관 사람들에게도 건넨다. 이곳에서 아띠들은 4월 23일부터 5일 동안 활동을 했다.



Thứ hai(월요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기관 소개 및 활동, 우리가 하는 활동-과 베트남어로 된 노래를 배우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준비된 노래 4곡 중 2곡을 배웠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라고 한다. 오후에는 비즈공예를 했다. 낚시줄과 쪽가위,形形色색의 구슬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은 구멍으로 줄을 끼워 넣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눈과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미간은 좁혀진다. 어렵게 완성한 딸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준다는 말씀에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다.

Thứ ba(화요일). 전날 예고 받았던 대로 오전에는 십자수로 책갈피 만들기를 했다. 오후 활동은 오전에 다 하지 못한 십자수 마무리와 1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컴퓨터수업. 선생님께선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자기소개를 하는 PPT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 짝을 지어 베트남어로 자기를 표현하기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효과주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특성 때문인지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처음 자기소개 후 아쉬울 정도로 학생들과 아무 교류가 없었다.

Thứ tư(수요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오전엔 노래 부르기, 오후엔 비즈공예를 했다.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노래 부르기를 속도를 빠른 속도로 부르거나 가벼운 벌칙을 두고 부르니 색달랐다. 오후에는 동글동글 귀여운 con heo(돼지)를 만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 만들 수 있어서 더 애착이 갔다. 쉬워 보였지만 쉽지만은 않았던 점도 아이러니 했다.

Thứ năm(목요일). 앵두가 수놓아진 컵 받침대를 만드는 것이 이 날의 활동이었다. 오전 내내 수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을 몽땅 할애해서야 완성작이 나왔다. 굵은 어깨와 허리를 펴니 개운했다.

Thứ sáu(금요일). 노래를 부르는 중간 중간, 한국의 ‘코 코 코 코, 눈!’과 비슷한 베트남 손유희를 배웠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점심도 스스로 준비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번 묻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점심은 완성이 되었고, 맛있게 먹었다. 오후 비즈공예 활동 땀 con mèo(고양이)를 만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5일 동안, 기관의 많은 사람들과 지내며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전 활동과는 다르게, 짜여진 프로그램과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좋았다면 기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부분, 활동을 하면서 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



이주리 기자 silvia129@naver.com



Am I cruel or kind?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베트남>하면 <국제결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가난한 베트남 처녀들이 농촌으로 시집와, 자기 나이의 두 배에 가까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이미지가 <베트남>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였다. 베트남은 나에게, '여자들이 팔려오듯 시집가야할 만큼 가난한' 무시무시한 상상속의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베트남에 있다. 다른 언어, 다른 냄새, 다른 날씨, 다른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처음엔 많은 것들이 달랐다. 하지만 차곡차곡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새 다르다고 느꼈던 것들에 많이 익숙해졌다. 익숙해지고 나니 베트남이 달라졌다. 사람이란 참 웃기다는 생각을 한다. 세상이 진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일 땐 불쌍한 허구의 나라이던 베트남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되니 그냥 사람 사는 곳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깨비를 얼마나 진실인 것처럼 믿어왔던가?

이러한 허깨비는 비단 베트남에 대한 내 상상뿐만이 아니다. 요즘 들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다. 베트남 YMCA 건물에는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 남공 친구들이 있다. 이미 열흘정도 그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을 했고, 다른 곳으로 활동지를 옮긴 지금도 저녁 먹으러 가면서 매일 얼굴을 본다. 지난 주말에는 롤러장도 함께 놀러갔다. 어느덧 알게 모르게 정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숙소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얼굴이 보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나는 그들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감정마저 허깨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들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바늘에 찔려 피나는 고사리 손을 봤거나, 16살인 줄 알았는데 13살밖에 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나, 자기 키보다도 높게 쌓인 일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피나는 이 아이의 손가락은 안쓰럽지만, 재봉틀 돌리는 직종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아이가 곤란해 할지도 모르는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고민은 뉘비우스의 피처럼 계속 돌고 돈다. 사실, 누군가의 미래를 걱정해준다는 것만큼 건방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 미래도 모르는 판에 누가 누구 걱정해준다는 것인가. 하지만,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즐거움만을 취하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상적인 친구 사이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좋은 일만을 공유하는 친구에 가깝다.

흑백을 가르듯 어느 한 쪽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건방지지 않게, 그러나 좋음과 나쁨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중도를 찾아가는 길 언저리에 있다. 나만의 중도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 길기만 맴돌다 돌아버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후자보단 전자이기론-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란다.

김민주 기자 wansheong@nate.com



Saturday 7, April

2012년 4월 7일 벤째 코코넛페스티벌에 가다!



아빠들은 3월 한 달 간 베트남어 수업을 도와준 Duyen의 초대로 코코넛페스티벌이 크게 열린다는 벤째(Ben tre)에 다녀왔다.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 마냥 신난 아빠들을 Duyen 어머니께서 즐겁게 맞이해주시며, 맛있는 껌 찌에우(베트남 볶음밥)와 알파벳모양의 면으로 만든 면 음식을 해주셨다. 오늘이 코코넛페스티벌 첫날이라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었다. 푸드페어에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는 것과 비슷했다.

푸드페어 구경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코넛 페스티벌 개막식을 보러 갔다.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입은 어여쁜 여학생들과 용의 탈을 쓰고 역동적인 용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남학생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숭이 탈을 쓰고 퍼레이드 거리를 활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젊음이 느껴진다. 벤째 코코넛 페스티벌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지역주민들의 화합,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지역 축제'가 아닐까?

페스티벌 마지막 퍼레이드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행사가 있었다. 다양한 국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국기는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이곳을 오게 된다면 베트남 국기 옆에 태극기도 같이 펄럭이기를 바라본다.



코코넛 페스티벌로 향하는 지역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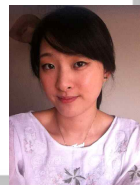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 한 十二干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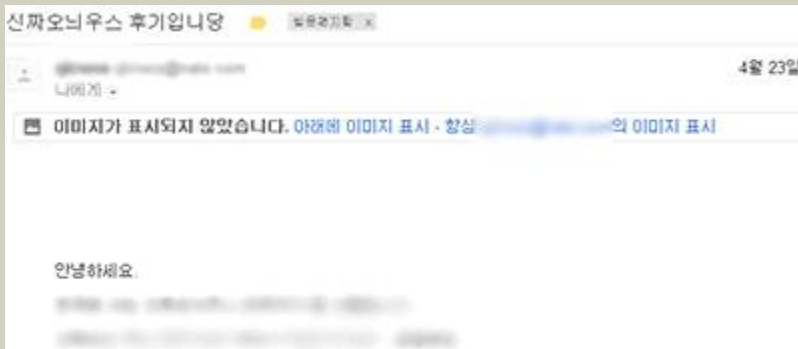


베트남 라디오PD님과 즐거운 인터뷰

유지향 단원 youji0621@naver.com



신짜오 닉우스 창간호 후기 당첨자



축하합니다!! q00000@nate.com님 보내주신 후기는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짜오 닉우스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당첨안내는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찌가 탐나는 사람 여기 모두 모여라!

